

'택시운전사' 송강호의 목표를 듣다 | "현대사 비극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 해 나갈 것 인가"

배우 송강호(50)의 최근 4년간 필모 그래피는 새롭다. '초록물고기' (1997) 등 강렬한 조연 역할을 했던 1990년대 후반이 송강호 '연기 1기' 라고 본다면, '공동경비구역 JSA' (2000)를 시작으로 '살인의 추억' (2003)을 거쳐 '박쥐' (2009)로 이어지는 기간은 그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배우로 올라서는 2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변호인' (2013)부터 현재까지가 3기다. 이 시기는 송강호가 영화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기간이다. '변호인' '사도' (2015) '밀정' (2016) 등에 참여하면서 그가 유독 '의미'를 강조했던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택시운전사' (감독 장훈) 역시 '송강호 3기'에 해당하는 영화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비극, 우리 현대사에서 여전히 가장 가슴 아픈 사건으로 남아있는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해나갈 것인가 하는 게 이 작품의 목표다. 그는 "연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잘할 것인가'다. 그에 못지않게 배우에게 중요한 건 '무엇을 말할 것인가'다. 최



근 일련의 작품 선택은 어떤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배우로서 기본적인 의식에서 나온 선택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 작품에서 그가 연기한 '김만섭'은 서울 택시 기사다.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을 취재하기 위해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 (토마스 크레취만)가 입국하는데, 만섭은 택시비 10만원을 준다는 얘기에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광주로 간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외부인의 시선으로 광주에서의 사건들을 바라본다. 송강호는 "만섭은

정의로운 시민이 아니다. 가장 평범한, 모든 사람의 시선을 담고 있다. 관객을 대표하는 시선일 수도 있다. 이 비극을 안고 살아온 국민의 시선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캐릭터의 매력보다는 영화 자체의 무게감이 와닿았던 거죠. 80년 광주를 이야기할 때, 비극의 현대사를 기억하자, 잊지 말자고 하던 시기가 있었죠. 이런 측면에서 나온 영화나 문학도 있었어요. '택시운전사'는 단순히 그때의 참상을 그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희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결

국 우리가 극복해가고 있지 않나,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송강호는 "택시운전사"는 정치적 구호나 사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정말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 다시 말해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1980년 5월, 송강호는 중학생이었다. 그는 아침 라디오 뉴스로 광주에서 폭도를 진압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하고 등교했다. 송강호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다. 지난 10일 언론 시사회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부채 의식과 마음의 빛'을 이야기했다.

송강호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기본적으로 가진 감정"이라고 했다. "'택시운전사'는 그런 감정들을 예술로 승화한 더 성숙한 작품이죠. 그 일들에 대한 진실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정신들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밑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게 부채 의식이겠죠."



/뉴스1

'아이돌학교' 순조로운 출발... 시청률 2.3%

남녀 15~34세 층 타깃으로 동시간대 1위 석권

결그룹 인제 육성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아이돌학교'가 순항의 뜻을 올렸다. 지난 14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아이돌학교' 1회는 케이블, 위성, IPTV가 통합된 유료 플랫폼 가구 기준 평균 2.3%(엔넷·tvN 합산)를 기록했다.

특히 주요 타깃층인 남녀 15세~34세 층에서는 종합편성 채널과 케이블을 기준으로 동시간대 1위를 석권했다.

결그룹과 보이그룹을 육성하는 과정을 그리며 흥행한 엔넷의 또 다른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 1·2와 겹쳐보일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다.

또 연습생을 경쟁시키는 프로그램이냐는 비판의 목소리와 '프로듀스 101'의 아류가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지만 학생들이 아이돌이 되기 위해 배우는 교과 과정이 상세하게 다뤄져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이 보컬 기초 실력 평가를 받는 장면에서는 최고 시청률이 3%까지 뛰기도 했다.

이와 함께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는 '아이돌학교'뿐 아니라 학생들의 이름이 10위권 내로 대거 등장하기도 했다.

첫 방송에서는 41명의 학생들이 결그룹 전문 교육 기관 '아이돌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이 그려졌다. 입학시험에는 YG 6년차 연습생 출신의 이서연, JYP 연습생 출신 나찌, 박지연, '프로듀스101' 출신 이해인 등 낮은 열광률이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앞서 치러진 기초 실력 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기록한 나찌는 수석 입학생으로서 입학생 선수를 선창하기도 했다.

방송 마지막에 공개된 첫 방송 실시간 성적 1위는 이해인이 차지했다. 학



생들의 성적에는 시청자들의 온라인 선형 평가 투표 결과가 10%, 실시간 데뷔 능력 평가 투표 결과가 90% 반영된다.

개교 첫날을 맞아 거행된 입학식에서는 교장 선생님을 맡은 배우 이순재가 "결코 순탄치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며 "11주 동안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열광시킬 아이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1

유병재, 내달 11~12일 스탠드업 코미디쇼 열어

버즈, 2년 7개월만에 새 앨범

유병재(29)가 본격 스탠드업 코미디에 나선다. 지난 14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유병재는 다음 달 11~12일 서울을 마포구 불광홀에서 스탠드업 코미디쇼 '블랙코미디'를 진행한다.

스탠드업 코미디는 분장이나 무대 장치 없이 오직 입담으로만 관객에게 웃음을 주는 쇼를 말한다. 유병재는 앞서 종합편성채널 JTBC 예능프로그램

'말하는대로'에 출연, 촌철살인 입담을 선보이며 스탠드업 코미디쇼 가능성을 보였다.

소속사는 "유병재 특유의 영리하고 멋스러운 '블랙코미디'가 지친 우리 일상에 새로운 화두를 던질 것이다. 그만큼 색채로 관객들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블랙코미디'는 21일부터 육선에서 예매 가능하다.

/뉴스1

밴드 '버즈'가 이달 말 가요계 복귀를 선언하며 스탠드업 코미디쇼 가능성을 보였다.

지난 14일 소속사 산타뮤직에 따르면, '버즈'는 28일 오후 첫 번째 미니 앨범 '비 원'(BE ONE)을 내놓는다.

이번 앨범은 지난해 10월 싱글 '년 살아있다' 이후 8개월 만에 내놓는 새 노래이며, 앨범으로는 2014년 11월 내놓은 '메모리즈' 이후 2년 7개월 만에

소속사는 "'BE ONE'에는 '버즈'만의 감성이 짙게 담긴 발라드 곡과 남성적인 분위기의 곡, 빠르고 경쾌한 느낌의 곡과 함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8년만의 여름'에 이은 신나는 여름 노래까지 모두 5곡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1

류현경 '20세기 소년소녀' 합류... 한예슬과 호흡

배우 류현경(34)이 MBC TV 새 월화 드라마 '20세기 소년소녀'에 출연한다고 소속사 프레인TPC가 최근 밝혔다.

드라마는 어린시절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35살 동갑내기 세 여자가 사랑과 우정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는 작품이다.

류현경은 승무원 '한아름'을 연기한다.

한아름은 20kg를 감량해 국악기 승무원 공채에 합격한 인물이며, 연애에 유난히 집착하는 캐릭터다.

류현경의 드라마 출연은 케이블 채널 엠넷 드라마 '더러버' (2015) 이후 2년만이다.

한편 '20세기 소년소녀'에는 앞서 한예슬·김지석·오상진이 출연 결정했다. 드라마는 9월 방송 예정이다.

/뉴스1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